

한발제일 새 출발 특별새벽기도회 넷째 날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57-62)

-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 너는 나를 따르라 -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당신의 미래는 어떨까? 한마디로 우리는 모른다. 알 수 없다. 알아서도 안된다. 미래에 대해 안다면 우리는 극도의 충격이나 공포에(혹은 둘 다에) 사로잡혀 매사에 지혜롭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최선의 유익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정작 겪기도 전에 충격에 휩싸일 것은 뻔한 일이다.

서른 살 때만 해도, 나는 네 자녀를 두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나 마흔에 들 어설 때는, 4남매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마흔 살 때만 해도 나는 아내를 잃고 자식들을 혼자 힘으로 기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선을 앞둔 지금 나는 아내를 사별한 자로서 배우자의 도움 없이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감히 미래를 알고 싶은 모험심이 내게 있을까? 앞날이 어떻게 될 지 정말 알고 싶을까? 그것을 안다고 과연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 만일 우리의 미래가 힘겹고 고달프며 고난으로 점철될 것임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몸을 사리며 그 끔찍한 실체를 불안스레 기다릴 것이다. 손써볼 힘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말이다. 동시에 우리는 고난 이 가져다줄 지혜와 성품도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의 미래가 탄탄대로일 것임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해질 것이다. 우리 몫으로 주어질 미래의 낙을 누릴 능력만 잃고 마는 꼴이다.

- 제럴드 싯처, “하나님의 뜻” -

A.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이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오늘 소소하게 보이거나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의 작은 성취를 행복하게 여기며 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저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B. 큰 꿈과 비전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이라는 시간에서의 동행으로 하여금 내일의 꿈과 비전을 위한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관하심에 대해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다.

C. 미래에 대해 가끔씩 힌트를 주시며 보여주실 때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사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대처할 만큼의 이해력이 나에게 없더라는 것이다.

D. 그런데 그렇게 보여 주신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다.

그것은, ‘아, 그래서 그 때 그걸 보여 주셨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아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사모하며 매어 달리게 되는 것이다.

E. 하나님께서는 보여 주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가장 적절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신다.

1.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불편한 상태

A. “자기 욕구적 관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_____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9:57-58)

B. 돌봐야 할 자기 삶이 우선으로 여겨진다.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_____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_____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_____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쥘 것을 잡고 _____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59-62)

2. 우리의 염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 A.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나의 삶을 위한 “생명, 길, 진리”되신다.
- B. 나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보살피진다.
- C.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 D. “만약 따른다면, 이것은?, 저것은?”
- E.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에 의해 밀려나게 된다.

3. 먼저 해결되어져 할 것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 A.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 B. 어느 정도 가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안해한다.
- C. 그 불안을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이 허비, 낭비된다.
- D. 모든 것을 고려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 E.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된다.

- 23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_____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_____ 구원하리라
-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_____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_____ (누가복음 9:23-26)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 제럴드 싯처, “하나님의 뜻” -

4. 적 용

(구체적일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은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5. 기도문 (결단과 다짐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기도문을 써 보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